

하버드옌칭도서관 소장 司馬榜目に 관한 고찰

A Study on Sama Pangmok in Harvard-Yenching Library

한 미경(Meijing Han)*

◁ 목 차 ▷

- | | |
|---------------|-------------------|
| 1 緒 言 | 3 하버드옌칭도서관소장 사마방목 |
| 2 생원진사시와 사마방목 | 4 結言 |
| 2.1 생원진사시 | 참고문헌 |
| 2.2 사마방목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미국 하버드대학 내 하버드옌칭도서관 한국부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시대 기본 과거인 소과 생원진사시의 기록물이자 합격자 명부인 사마방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선시대 개국이래 갑오경장 때까지 실시되어 온 생원진사시는 230회 실시되었고, 그에 따라 간행된 사마방목 중 186종이 현전하고 있다. 그 중 이 도서관은 47종의 사마방목을 소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논문 중 하버드옌칭도서관 소장사항을 조사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1968년에 7종, 1980년에 5종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고는 20여 년이 지난 현재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 도서관의 현 소장상황을 조사하여 밝히고 기존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다. 생원진사시 및 사마방목에 대하여 고찰하고, 각 사마방목의 소장 및 서지사항을 살펴보고, 특징적인 사항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이후 해외유출전적 및 과거사 등의 구체적인 연구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concerns Sama Pangmok which is in the possession of Harvard-Yenching Library, Harvard University, USA. Sama Pangmok is the archive of Saengwon Chinsa Examination(the licentiate examination) which is the preliminary test for main civil service examination. And it is the list of the names of the applicants who passed this examination. This examination were conducted from the days of lauching of Chosun as a new nation to the days of Kabo Kyungjang(the 1894 reform). While this examination was conducted 230 times, not all but 186 of the resultant lists are available. Of these 186 lists, this library posses 47 titles. My study of the existing dissertation on the possession of titles by Harvard-Yenching Library, 7 titles where in possession of the same library in 1968 and 5 ones in 1980. It is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to clarify the possession of this library and correct the

*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 전공 강사; mejinghan@hanmail.net

前 Korean Old and Rare Book Specialist and Research Scholar for Korean Section, Harvard-Yenching Library, Harvard University, USA.

past errors in indication of possession of titles by this library. For this purpose, I conducted a study on Saengwon Chinsa Examination and Sama Pangmok, which could be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is study. This was followed by research on the bibliographical aspect of Sama Pangmok and the research on the situation concerning this Library's possession of the same lists. Lastly, the analysis of the special feature of Sama Pangmok possessed by this Library was conducte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ill be applied to the practical research of the history of civil service examinations and the old and rare books overseas in the future.

1 서 언

우리나라에 있어 관리를 선발하는 '科擧'라는 공식적인 제도는 고려시대 958년(광종 9)에 처음 실시되어 조선시대에 가장 번성되다가 갑오경장 때에 중지되었다.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도 과거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말에 이르기까지 약 천여년 동안 계속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한편 근 오백년 동안 과거를 실행한 조선시대는 과거의 결과를 공시하는 역사적인 기록물로 방목을 생산해 냈다. 그 중 조선시대 모든 과거의 일차단계인 생원진사시의 기록물인 방목을 흔히 '司馬榜目'이라고 한다.

과거의 기본단계인 소과의 합격자 기록물인 사마방목의 현존 부수는 과거의 최종단계인 대과의 방목인 '문과방목'에 비하여 훨씬 많다. 현재까지 조사 연구된 바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실시된 생원진사시가 모두 230회였고, 그 중 186회분 정도의 방목이 국내외에 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과거 및 과거관련 연구가 다방면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과거의 기초인 생원진사시의 기록물인 사마방목에 대한 연구는 일부 연구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외에 전하고 있는 사마방목에 대한 고찰은 해당도서관의 소장중수에 대한 언급정도이며, 그나마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재조사하여 수정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 하버드대학 내 동양도서관인 하버드엔칭도서관의 사마방목의 소장사항을 최종적으로 고찰한 1980년의 논고에 따르면 5종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2002년 현재 귀도서관의 사마방목 소장 상황은 이와 사뭇 달라 47종을 소장하고 있으며, 복사 영인된 사마방목을 포함하면 88종을 소장하고 있다. 이는 동양학 또는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

들이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하버드엔칭도서관의 사마방목의 소장사항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하버드엔칭도서관의 사마방목 소장 현황을 재조사하여 기존의 잘못된 사항을 정정하고 그 소장사항 및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고는 우선 역사적 배경적 고찰로서 조선시대의 과거 및 생원진사시에 대하여 살펴보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하버드엔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사마방목을 조사·고찰하고자 한다.

2 생원진사시의 사마방목

일정한 시험을 거쳐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인 과거는 일찍이 고려시대 광종 9년(958)¹⁾에 처음 실시되어 관료주의 사대부사회인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활성화·복잡화되었다. 조선개국 이래 고종 31년(1894) 갑오경장으로 구시대의 산물들이 개혁되면서 그동안 끊임없이 조선시대의 폐단으로 지목되어 왔던 ‘과거제도’가 폐기되기까지 근 오백년 동안 계속되었다. 조선시대 과거에는 소과·문과·무과·잡과의 네 종류가 있었으며, 본 고에서는 모든 과거의 기본인 소과 생원진사시와 그 결과의 기록물인 사마방목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1 생원진사시

생원진사시에 대한 부분은 사마방목과 관련하여 배경적인 측면만을 다루기로 한다. 즉 명칭과 의의·정착배경·시험시기 및 시험회수 외에 시제·시취액수·시관·주관기관 등의 많은 부분들이 있으나 이에 대한 상세한 고찰은 다음을 기약하기로 한다.

1)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958년 고려 광종 9년에 처음으로 과거가 실시된 것으로 인정한다. 956년에 後周의 사신을 따라 우리나라에 온 從事官 중의 한사람인 雙冀라는 사람이 병을 얻게 되어 고려에 머물다가 결국 귀화하게 되었다. 이후 광종이 그의 재능을 귀히 여겨 翰林學士에 특별 임명하였고 大提學에 등용하였다. 958년에 그가 중국의 과거제도를 고려에서도 시행할 것을 건의하여 실시되게 되었다(李炳注 識, 『韓國科學史』(서울: 明義會, 1987), p.1).

2.1.1. 명칭과 의의

생원진사시는 흔히 ‘監試’ 또는 ‘小科’라고도 하고, 때로는 ‘司馬試’라고도 하였다.²⁾ 감시라고 한 것은, 생원시가 고려시대의 ‘國子監試’를 계승한데서 나온 말이다. 소과라고 한 것은 ‘文科’를 ‘대과’라고 부른 것과 대비시켜 사용한 말로 사료된다. 다만 생원시는 四書疑 및 五經義 등의 經學을 시험 본 것이며, 진사시는 詩賦 등의 詞章을 시험 본 것이나, 이 두 시험이 대과에 이르기 위해 거쳐야 하는 소과이므로 본고에서는 편의상 ‘생원진사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생원진사시는 독서하는 선비로서 15세 이상 照訖帖을 가진 자가 처음으로 응시하는 것이다.³⁾ 조홀첩이란 과거에 응시하기 전에 성균관에서 행하는 照訖講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던 증서이며, 조홀강이란 일종의 예비시험으로서 생원진사시의 경우 초시와 복시라는 정식시험 실시 전에 응시자에게 과하는 것이다.⁴⁾ 이는 다시 말해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시험 전에 먼저 성균관에서 호적의 대조를 마치고 <小學>을 背講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생원은 入學의 門이요, 及第는 入仕의 길이다”라고 한다. 이는 생원진사시의 목적은 관리가 되어 관직에 나아가는 입사가 아니라 성균관에 입학하여 문무과시험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생원진사시는 성균관의 上齋生으로 들어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부한 다음 문과에 응시할 자격을 얻는 시험으로서, 이는 우문좌무의 조선시대 있어서 또한 士類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공인받고 하급관료에 오를 수 있는 기본자격을 주는 시험이기도 하다. 따라서 생원진사의 자격만으로 관직을 얻기는 어려웠으나, 반면 조선시대 양반사회의 기본적인 자격조건을 하였으며, 또한 그로 인해 어느 정도 사회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2.1.2. 정착배경

조선시대 모든 과거의 기본시험인 생원진사시는 조선시대 개국 이래부터 정착되기까지 오랜 동안 복잡한 역사적인 절차를 밟아야 했으며, 이 부분에서는 생원진사시와 관련하여

2) 崔在鎭, 『李朝司馬試考(上)』, 『成大論文集』 14輯, 1969, p.41.

3) 李炳注, 상계서, p3.

4) 정신문화연구원 편, CD-ROM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간략한 과거의 정착단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생원시와 진사시로 구별되어 설치·폐지 및 병행이 반복되어 온 중요 역사적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태조가 개국이래 원년(1392) 7월에 내린 卽位敎書에 따라 監試(이하 진사시) 革罷, 즉 사장시험인 진사시를 없애는 대신 경학시험인 생원시를 설치.
- ② 태조 2년(1393) 2월 진사시 다시 부활, 동년 5월 102명의 진사 뽑음.⁵⁾
- ③ 태조 4년(1395) 12월 禮曹가 科學式을 詳定, 진사시를 폐하고 생원시를 두기로 함.⁶⁾
- ④ 정종 원년(1399)에는 다시 생원진사시를 병설.⁷⁾
- ⑤ 태종 원년(1401) 卽祚稱慶으로 시행된 증광사에서 생원시만을 거행.⁸⁾
- ⑥ 세종 19년(1437) 6월 集賢殿의 계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진사시를 부활 결정, 20년(1438) 2월 처음으로 진사시를 실시, 100명의 진사를 뽑음.⁹⁾
- ⑦ 세종 26년(1444) 정월에 生員漢城試에서 대리시험 적발사건으로 진사시 폐지.¹⁰⁾
- ⑧ 단종 즉위년(1453) 12월에 의정부와 예조가 진사시의 初試와 覆試의 시취액수를 정하고, 詩賦의 等第 및 分數를 생원시의 예를 따르기로¹¹⁾하여 단종 원년 2월에 부활.

이상을 정리하여 보면 조선시대 초기에는 생원시만 있었으나, 세종 20년에 진사시가 생겨 생원시와 진사시가 병행되었다. 그 후 세종 26년 2월에 진사시가 폐지되고 생원시만 실시되다가, 단종 원년 2월 진사시가 다시 부활되고 생원시와 진사시가 다시 병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2.1.3. 시험기간과 회수

조선시대의 과거는 정기적으로 시행되었으나 三年·選의 式年試는 고려 선종 때 세워진

5) 太宗實錄 卷3, 2年 5月丁未; 增補文獻備考 卷186 選舉考3 科制3 “太祖二年 設春場試兼取生員”

6) 太宗實錄 卷8 太宗四年乙亥十二月丙申

7) 增補文獻備考 卷186 選舉考三 科制三 “定宗元年 設科有乙丙等科 并設生員進士試”

8) 增補文獻備考 卷186 選舉考三 科制三 “太宗元年 以卽祚稱慶 設增廣試, 只學生員試”

9) 世宗實錄 卷80, 20年 2月 辛酉

10) 世宗實錄 卷103, 26年 正月 乙亥 丁丑, 2月 乙酉, 辛巳, 7月 壬戌

11) 端宗實錄 卷5, 卽位年 12月 甲寅, 端宗實錄 卷5, 元年 正月 壬午

것이다. 다만 그 당시에는 그다지 지켜지지 않았고¹²⁾, 조선시대에는 비교적 엄수되었다. 즉 태조 2년(1393)부터 子·午·卯·酉年에 三年·一試를 실행하고,¹³⁾ 이후 소과와 대과 모두에 이를 적용하였다.

식년시는 初試, 覆試(또는 會試), 殿試의 세 단계의 시험을 거쳤다. 그 중 소과인 생원진사시는 전자의 2단계를 실시하였고, 대과인 문과는 전체 3단계를 실시하였으니,¹⁴⁾ 원칙적으로 과거응시자는 총 5단계를 통과해야만 급제가 되는 것이다. 그 중 식년시의 소과 초시는 상식년 8월 하순에, 복시는 식년 2월에 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외에 수시로 열린 부정기시가 있는데, 이는 增廣試·別試·謁聖試·庭試·春塘齋試·外方別試·黃柑試 등이 있었다. 이 중 증광시는 모든 과거에서 시행하였으나, 그 외의 부정기시의 경우 문과와 무과만이 설행되었다. 다시 말해 증광시 이외의 부정기시는 생원진사시와는 별개였음을 알 수 있다.

개국이래 반세기에 걸쳐 실시된 생원진사시 관련된 이상의 정기시와 부정기시의 실행회수를 살펴보면 식년시가 163회, 증광시가 67회, 합계 230회 설행되었다. 이들의 실행 간격을 살펴보면 식년시는 3년에 한번, 증광시는 7.5년에 한번 설행된 셈이다.¹⁵⁾

2.2 사마방목

이상으로 언급한 생원진사시 시험이 실시된 후 그 결과의 기록물로 방목이 기록되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방목의 작성과 사마방목의 형식 및 현존 사마방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2.2.1 방목의 작성

과거의 각 시험마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관들이 출방한 뒤, 합격자 명단을 작성하여

12) 高麗史 卷73 選舉志 4 “宣宗卽位詔 進士以下諸業 自今許三年一試”; 高麗史 卷73 選舉之 13 “凡 選場 或比年 或間歲 未有定期 其取士 亦無定額”
 13) 太祖實錄 卷3 太祖 2年 3月辛酉 “禮曹上言 教書一疑節該 科舉之法 本以爲國取人 通三場相考 入格者 送于吏曹 量才擢用 監試革去願 自今當于午卯酉試之 上曰 今年且依前朝格試之 並行監試”
 14) 李鍾春, 『科學制度 研究』, 『清州教育大學 論文集』 8輯, 1972, p.91.
 15) 李成茂, 『韓國의 科學制度』 (서울: 集文堂, 1994), p.134의 표5.

국왕에게 보고한 뒤 공표하였다. 이때 생원진사시와 잡과는 ‘합격’이라 하였고, 문과와 무과는 ‘及第’ 또는 ‘出身’이라 하였다. 대체적으로 과거응시자의 합격자 명부인 방목을 네벌 작성하여 承政院·侍講院·禮曹 및 四館所에 각각 보내었다. 이때 국왕에게 올린 것을 ‘入啓榜目’이라 하고, 세자원에게 올린 것을 ‘入達榜目’이라 하였으며, 그 형태를 보면 전자는 책으로 되어 있었으나 후자는 帖本으로 되어 있다.

승정원에 제출한 입계방목은 먼저 임금이 열람한 뒤 中官에게 ‘榜’자를 새긴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후 승정원에서 장부에 기록하고, 다시 예조에 보내어 기록상의 착오가 있는가를 검토하게 하였으며, 만약 틀린 곳이 있으면 표를 붙여 입계하였다. 과거 합격자에 대한 합격증 수여식인 ‘放榜儀’가 있는 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입계방목을 대본으로 최종 합격자 명부인 방목을 인쇄 간행하여 합격자와 관계자에게 나누어 주었다.¹⁶⁾ 이것이 현재 우리가 볼수 있는 과거 결과의 기록물인 ‘방목’이며, 생원진사시의 ‘사마방목’ 또한 이에 해당된다.

2.2.2 방목의 형식

과거의 종류에 따라 또는 각 사마방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실사한 사마방목에 의하면 대개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대체적으로 권수부분·본문·권말부분으로 구성된다. 試官에 관한 사항, 합격자 본인에 관한 사항, 가족 및 기타 과거관련사항의 순으로 기록된다.

우선 권수부분에는 경사스러운 일 등 특기할 것들이 있는 경우 이를 기록하고, 일반적으로는 시관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다. 즉 권수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자기의 시관을 가르켜 일컫던 말인 ‘嚮門’¹⁷⁾이라는 제목을 두고 一所와 二所 試官의 관직과 성명을 적는다. 다음에 본문에는 주로 합격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다. 즉 생원진사시의 경우 생원시와 진사시로 구분한 후 본인에 대한 사항으로 합격자의 합격 순위에 따라 열기하되 첫째 줄에는 합격자의 성명·字·生年干支·본관 및 거주지, 둘째 줄에는 생부 및 양부의 관직과 성명, 그리고 셋째 줄에는 부모 및 형제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중 부모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면 부모가 모두 살아 있으면 ‘具慶下’, 아버지만 살아 있으면 ‘嚴侍下’, 어

16) 정선문화연구원편, CD-ROM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7) 한갑수, 『국어대사전』(서울: 興文圖書, 1975), p.1292.

머니만 살아 있으면 ‘慈侍下’, 양친이 모두 죽었으면 ‘永感下’ 라고 적고, 그 아래 雁行으로 형제의 성명을 작은 글씨로 적고 있다.¹⁸⁾ 이어 권말부분에는 과거 실시 관련 소임을 맡은 色掌에 대한 기록, 과거 실시 장소인 一所 및 二所에 대한 사항, 試題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다. 이외에 생원과 진사의 두시험에 동시에 합격한 자에 대한 기록인 ‘兩試’와 형제가 함께 시험에 합격한 경우를 기록한 ‘聯璧’ 등에 대한 특기할 사항의 기록이 첨가되기도 한다. 또한 ‘京外入格數’에 대한 기록이 지역별로 생원과 진사의 합격자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방목에 따라 ‘芸閣’, ‘內閣’ 등과 같은 간행지와 간행년 및 ‘活印’ 등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2.2.3 현존 사마방목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고려의 기존제도를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후 갑오경장(1894)을 맞이하면서 과거제도의 실시가 중지될 때까지 근 5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그 중 소과 생원진사시의 실시회수 및 그 기록물인 사마방목의 현전 부수에 대한 논고는 3명의 연구자에 의한 6종이 있다. 그 중 최초의 연구자로서 일본인 三木榮이 1933년과 1957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하였다.¹⁹⁾ 그는 1933년의 논고에서 76부의 사마방목을, 1957년의 논고에서는 236회에 걸쳐 간행된 124부의 사마방목의 소재를 다루고 있다. 이후 桂勳模가 삼목영의 조사를 참고하고 수정 보완하여 1968년에 231회에 걸쳐 간행된 147종의 사마방목의 소재를 조사하였고, 그는 다시 본인의 기존 내용을 수정 조사하여 1980년에 230회에 걸쳐 간행된 177종의 사마방목의 소재를 소개하였다. 이후 최진옥의 1988년과 1998년 논고에 의하면, 계훈모가 조사한 177종 외에 9종을 더 발견하여 186종이 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연구자들의 논고를 종합하여 보면 조선시대의 소과인 생원진사시는 230회에 걸쳐 실시되었고, 그에 대한 기록물인 사마방목은 186종이 현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정신문화연구원 편, CD-ROM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 司馬榜目について. 『書物同好會會報』, 1933과 『司馬榜目』について-見在『司馬榜目』一覽表, 『朝鮮學報』 第11輯, 1957로서 이는 이후 계훈모의 논고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3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 사마방목

조선시대 개국이래 갑오경장까지 500년 동안 230회 실시되고 현재 186종이 전하는 생원진사시의 기록물인 사마방목의 미국 하버드대 학내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 사항에 대한 기존의 조사와 현재의 실제 소장사항 및 그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하버드엔칭도서관 소장 사마방목에 대한 기존의 조사

기존의 사마방목에 대한 논문 중 해외소장 사마방목에 대한 상황은 계훈모에 의한 조사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계훈모의 1968년 조사를 살펴보면 하버드엔칭도서관에 7종의 사마방목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온다. 각 소장해당연도와 소장도서관 및 소장자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1654년본: 하버드엔칭도서관
- * 1721년본: 성균관대학교도서관, 三木榮, 중국 국립중앙도서관, 하버드엔칭도서관, 澗松文庫本(故 澗松 金鑿弼氏本)
- * 1850년본: 규장각도서, 一簣文庫(故 一簣 方鍾鉉教授本), 서울대학교부속도서관 마이크로필름, 하버드엔칭도서관, 중국국립중앙도서관
- * 1858년본: 서울대학교부속도서관 고도서, 서울대학교부속도서관 마이크로필름, 국립중앙도서관, 하버드엔칭도서관, 성균관대학교도서관
- * 1876년본: 金斗鍾박사, 서울대학교부속도서관 마이크로필름, 성균관대학교도서관, 東洋本文庫(故 前間恭作本), 하버드엔칭도서관
- * 1891년본: 金斗鍾박사, 서울대학교부속도서관 마이크로필름, 성균관대학교도서관, 하버드엔칭도서관, 장서각, 고려대학교도서관, 동국대학교도서관, 三木榮, 東洋本文庫
- * 1894년본: 서울대학교부속도서관, 서울대학교부속도서관 마이크로필름, 想仁文庫(故 想仁 李相伯博士本), 金斗鍾박사, 고려대학교도서관, 충남대학교도서관, 하버드엔칭도서관, 澗松文庫

이후 기존의 1968년 논고를 추가 조사 후 수정한 계훈모의 1980년 논고를 보면 귀도서관 소장본은 5종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각 소장해당연도와 소장도서관 및 소장자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1654년본: 晩松金完燮文庫, 하버드엔칭도서관
- * 1721년본: 澗松文庫本(故 澗松 金鏐弼氏本: '簡'으로 표시하고 있다.), 晩松金完燮文庫, 三木榮, 誠庵趙炳舜文庫, 영남대학교중앙도서관, 중국 국립중앙도서관, 하버드엔칭도서관, 華山李聖儀文庫, 성균관대학교도서관
- * 1850년본: 서울대학교부속도서관 고도서,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도서, 晩松金完燮文庫, 一山金斗鍾博士文庫('一'과 '山'의 두가지 약자를 사용하여 두 번 표시하고 있다.), 一簣文庫(故 一簣 方鍾鉉教授本), 중국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하버드엔칭도서관
- * 1858년본: 서울대학교부속도서관 고도서, 국립중앙도서관, 晩松金完燮文庫, 성균관대학교도서관, 一山金斗鍾博士文庫, 華山李聖儀文庫, 하버드엔칭도서관
- * 1876년본: 건국대학교도서관, 一山金斗鍾博士文庫, 성균관대학교도서관, University of Chicago, 하버드엔칭도서관

이상을 살펴보면 1654년본의 사마방목은 1968년 당시 국내외를 막론하고 귀도서관에만 소장되어 있는 유일본으로 나온다. 그러나 1980년의 조사에 의하면 1654년본의 사마방목은 귀도서관 외에도 국내의 晩松文庫에도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그 외 1891년본과 1894년본의 사마방목은 1980년의 조사에 의하면 하버드엔칭도서관에는 소장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2년 현재 귀도서관은 이들 1891년본과 1894년본을 포함하여 기존의 7종을 모두 소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사뭇 다른 소장 양상을 보이고 있다.

3.2 하버드 엔칭도서관 소장 사마방목

하버드엔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사마방목을 살펴보면 목판본이나 활자본 중에서도 후쇄본과 같은 것 그리고 이후에 개장된 것도 보인다. 한편 일부 필사본이나 등사본의 경우 후대에 필사 또는 등사되었을 가능성이 많기에 이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없이 함께 다루기에는 조금의 무리가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상세 분석은 다음을 기약하며 여기에서는 복사 또는 영인된 것(부록 1 참조)과 마이크로폼으로 이후에 재발행된 것(부록 2 참조)과 구별하여 단권으로 간행된 사마방목에 대한 각각의 소장 및 서지사항 등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 사마방목은 TK 2291.7/1746으로 분류되고 과거실시년이 분류번호에 이어 서기년으로 ()안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분류번호는 생략하였다. 그 중 간행서기년은 시험실시년과 다른 간행년을 가지고 있을 경우 기록하였다. 또한 필사본의 경우 미상인 경우가 많으나 '필사년미상'을 기록하였으며, 형태사항의 경우 권책수(장수), cm로 표기한 크기·판본·항자수·광곽·중봉·판심 및 어미 등에 대한 사항을 표시하였다. 단 일부 서지사항 중 실제자료상에서 찾을 수 없는 부분은 생략하였다.

기입순서: 권두서명(실시서기년 및 왕대년). 간행처. 간행서기년(왕대년). 형태사항.

비고

嘉靖元年[我中宗大王十七年](1522 중종17)壬午式年司馬榜目 필사년미상 1(13)

28×19 필사본 8항9자 흐린 녹색 광곽

司馬榜目[嘉靖二十八年己酉(1549 경종4)九月初九日司馬榜目] 1(24, 24) 26×18.5 필

사본 9항 23-4자 광곽 및 계선 그려넣음

嘉靖四十二年甲子(1564 명종 19)七月二十日司馬榜目 崇禎紀元後癸丑(1673 현종14)

1(1,32,1,5) 32×21.3 활자본 10항 17자 광곽 상사각흑어미

嘉靖四十二年甲子(1564a)七月二十日司馬榜目 필사년미상 1(1, 32, 5) 31.5×20.5 필

사본 10항 16-7자 상하삼엽흑어미

萬曆三十四年(1606 선조39)十一月初六日生進榜目 필사년미상 1(24) 25×22 필사본

14항 약22자

進桂榜目: 萬曆丙辰天啓丁卯崇禎壬午(1616 광해군8) 필사년 미상 1(27,5,11)

34×21.5 필사본 12항 약23-4자 상하이엽흑어미를 별도로 찍어넣음 광곽

및 계선 그려넣음

崇禎八年乙亥(1635 인조13)十月初四日增廣司馬榜目 1(29). 29×19.3 목판본 11항 17

자 상하삼엽흑어미

丙戌(1646 인조24)式年司馬榜目 1(17,17) 29.2×18.3 목판본 10항 18-9자

상하일엽흑어미 일부반달어미

戊子(1648 인조26)式年司馬榜目 1945 1(1, 38) 25.1×17.5 등사본 14항 약21자 상하
화엽흑어미

辛卯(1651 효종2)式年司馬榜目 1(32) 27×20 목판본 11항21자 상하흑어미 판심에 장
수 표시

甲午(1654 효종5)式年司馬榜目 庚申(1680 숙종6)改裝 1(37) 28×18 목판본 10항 16
자 광곽 상하이엽흑어미

壬子(1672 현종13)式年司馬榜目 癸丑(1673 현종14) 1(1,38) 30.3×19 활자본 10항18
자 상삼엽흑어미 판심에 서명 및 장수 표시

壬戌(1682 숙종8)增廣司馬榜目 필사년미상 1(39) 25×16.5 필사본 10항약23자 붉은
광곽 및 계선 그려넣음

癸亥(1683 숙종9)增廣司馬榜目 1(38) 30×29.7 활자본(戊申字本) 10항17자 상하흑어
미 판심에 서명 및 장수표시

辛未(1691 숙종17)增廣司馬榜目 1(2,34) 29×18.6 목판본 10항 19자 상하이엽흑어미
일부 백어미

癸丑(1713 숙종39)增廣司馬榜目 芸閣 乙未(1715 숙종 41) 1(43) 32.3×20 활자본 9항
17자 상하이엽어미 상란에 생원진사표시 판심에 서명 및 장수표시

辛丑(1721 경종 원년)聖上即位增廣別試司馬榜目 芸館 乙巳(1725 영조1) 1(20,20,5)
31×19.8 활자본 9항 17자 상하흑어미

崇禎再庚申(1740 영조16)增廣司馬榜目 戊子(1768 영조44) 1(17,16,7) 31.4×20 목판
본 10항 20자 상하흑어미 상란에 생원진사표시 판심에 서명 및 장 수 표
시

崇禎三癸酉(1753 영조29)式年司馬榜目 戊寅(1758 영조34) 1(41) 30.2×19.5 목판본
10항17자 상이엽흑어미 상란에 생원진사 표시 판심에 서명 및 장 수 표시

崇禎三甲午(1774 영조50)式年司馬榜目 1(38) 33×2 목판본 10항17자 상하흑어미 상
란에 생원 진사 표시 판심에 서명 및 장수 표시

崇禎三己酉(1789 정조13)式年司馬榜目 1(18,18,5) 34.1×21.9 활자본(丁酉字本) 10항
17자 상이엽흑어미 상란에서명표시

- 崇禎三辛酉(1801 순조1)春聖上即位慶科別試增廣司馬榜目 芸閣 甲子(1804 순조4)
1(1,1,38,6) 35.6×22.7 활자본(丁酉字本) 10항18자 상이엽흑어미 상란에 서
명표시
- 崇禎三癸亥(1803 순조3)春大殿中宮殿疹候平復合二慶科別試增廣司馬榜目 芸閣
1(1,18,18,5) 34.2×21.7 활자본(丁酉字本) 10항18자 상이엽흑어미 상란에 서
명표시
- 崇禎百七十七年甲子(1804 순조4)式司馬榜目 芸閣 1(1,1,38,6) 35.6×22표시 활자본
(丁酉字本) 10항 18자 상이엽흑어미 상란에 서명표시
- 崇禎三乙丑(1805 순조5)冬大殿痘候平復慶科別試增廣司馬榜目 芸閣 1(1,19,18,5)
33.8×21.3 활자본(丁酉字本) 10항18자 상이엽흑어미 상란에 서명표시 판심
에 생원진사표시
- 崇禎紀元後百八十六年癸酉(1813 순조13)王妃殿寶齡六旬上候平復王世子冊禮王大
妃殿寶齡周甲合四慶慶科增廣司馬榜目 芸閣 乙亥(1815 순조15) 1(1,18,19,4)
32.6× 21.7 활자본(丁酉字本) 10항18자 상이엽흑어미 상란에 생원진사표시
판심에 서명 및 장수표시
- 崇禎紀元後四辛卯(1831 순조31)式司馬榜目 芸閣 1(1,19,19) 36.7×23.5 활자본(丁酉
字本) 10항18 상이엽흑어미 상란에 서명표시
- 崇禎紀元後四乙未(1835 현종1)慶科增廣司馬榜目 芸閣 丙申(1836 현종2) 1(1,17,18)
34.1×21 활자본 10항18자 상이엽흑어미 상란에 생원진사표시 판심에 서명
및 장수표시
- 崇禎紀元後四癸卯(1843 현종9)式司馬榜目 芸閣 1(1,20,20,7) 36.6×23 활자본(丁酉字
本) 10항18자 상이엽흑어미 상란에 생원진사표시 판심에 서명표시
- 崇禎紀元後四丙午(1846 현종12)式司馬榜目 內閣 2권2책 34×21 활자본(丁酉字本)
10항18자 상이엽흑어미 상란에 생원진사표시 판심에 서명표시
- 崇禎紀元後四戊申(1848 현종14)增廣司馬榜目 芸閣 己酉(1849 현종15) 1(2,19,9,4)
36.3×22.5 활자본(戊申字) 10항18자 상이엽흑어미 상란에 생원진사표시 판
심에 서명 및 장수표시
- 崇禎紀元後四庚戌(1850 철종1)增廣司馬榜目 芸閣 1(1,2,18,19,7) 33.3×21.2 활자본
10항18자 상이엽흑어미 상란에 생원진사표시 판심에 서명및장수표시
- 崇禎紀元後四壬子(1852 철종3)式司馬榜目 芸閣 1(1,20,19,5) 34.8×22.2 목판본 10항

- 18자 상이엽흑어미 상란에 생원진사표시 판심에 서명 및 장수표시
崇禎紀元後四乙卯(1855 철종6)式司馬榜目 芸閣 1(1,19,20,6) 34.1×21 활자본 10항18
자 상이엽흑어미 상란에 생원진사표시 판심에 서명 및 장수표시
崇禎紀元後四戊午(1858 철종9)式司馬榜目 己未(1859 철종10) 1(1,18,22) 34.8×22 활
자본(丁酉字本) 10항18자 상이엽흑어미 상란에 생원진사 표시 판심에 서
명 및 장수표시
崇禎紀元後四己未(1859 철종10)增廣司馬榜目 元子誕生慶科增廣監試 芸閣 1(1, 19,
21, 6) 35×22.5 활자본 10항18자 상이엽흑어미 상란에 생원진사표시 판심
에 서명 및 장수표시
崇禎紀元後四丁卯(1867 고종4)式年司馬榜目 芸閣 1(2,31,35,7) 36×22.3 활자본(丁酉
字本)10항18자 상이엽흑어미
崇禎紀元後四[五]庚午(1870 고종7)式司馬榜目 芸閣 1(6,20,25,9) 34.7×22.5 활자본 10
항18자 상이엽하흑어미 상란에 생원진사표시 판심에서명및장수표시
崇禎紀元後五甲戌(1874 고종11)增廣別試司馬榜目 1(2,23,23,4) 32.6×21 활자본 10항
18자 상이엽흑어미 상란에 생원진사표시 판심에서명및장수표시
崇禎紀元後五丙子(1876 고종13)式司馬榜目 1(3,8,19,5) 32.4×20.8 활자본(丁酉字本)
10항18자 상이엽흑어미 상란에 생원진사표시 판심에서명및장수표시
崇禎紀元後五己卯(1879 고종16)式司馬榜目 1(44) 36.6×23.5 활자본 10항18자 상이
엽흑어미 상란에 생원진사표시 판심에 서명 및 장수표시
崇禎紀元後五壬午(1882 고종19)式司馬榜目 芸閣 甲申(1884 고종21) 1(4,39)
30.7×20.5 활자본(丁酉字本) 10항18자 상이엽흑어미 상란에 사마방목표시
판심에 장수표시
崇禎紀元後五乙酉(1885 고종22)式年司馬榜目 內閣 辛卯(1891 고종28) 1(3,41,43,7)
35.5×22 활자본 10항18자 상이엽흑어미 상란에 생원진사표시 판심에 서명
및 장수표시
崇禎紀元後五乙酉(1885 고종22)慶科增廣司馬榜目 內閣 辛卯(1891 고종28) 1(57)
31.5×22 활자본 10항18자 상이엽흑어미 상란에 생원진사표시 판심에 서명
및 장수표시
上之卽祚二十九年辛卯(1891 고종28)慶科增廣司馬榜目 內閣 壬寅(1902 광무6) 2권2
책 35.4×22.5 활자본 11항20자 상이엽흑어미 상란에 생원진사표시 판심에

서명표시

上之即祚三十二年甲午(1894 고종13)式年司馬榜目 內閣 壬寅(1902 광무6) 3권3책
35.3×22.5 활자본 11항20자 상이엽흑어미 상란에 생원진사표시 판심에 서
명표시

이상으로 귀도서관은 갑오경장으로 과거가 중지될 때까지 개국이래 230회 실시된 생원진사시에 대한 기록으로 현전하는 186종의 사마방목 중 1522년부터 1894년까지 실시 간행된 45종을 소장하고 있다. 이들 귀도서관 소장 사마방목 중 1564년의 2개는 1종으로 같은 해에 간행된 같은 내용의 사마방목으로 하나는 필사본이고 나머지 하나는 활자본이다. 이들의 관계는 필사본(圖 1 참조)을 근거로 활자본(圖 2 참조)이 간행된 것으로 이에 대한 내용은 후술하기로 한다.

귀도서관의 소장 사마방목중 일부는 단권의 사마방목으로 소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기나 문집 등에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는 것도 있다. 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실기 중 조선 전기의 문신李文佐(1461?~1491)의 실기자료인 <細村先生實記>(TK 2294.5/4402 석인본 昭和11[1936])의 부록으로 蓮榜 <成化16年(1480 성종11)司馬榜目>이 실려 있다. 참고로 본실기에는 이외에 文科榜으로 <成化19年春場榜>도 실려 있다. 또 하나는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金叔滋(1389~1456)의 실기자료인 <江湖先生實記>(TK 2294.5/8123 목활자본 昭和9[1934])의 부록 중에 甲午(1414) 생원시의 합격자명단이 실려 있다. 참고로 이는 <師友錄>이라는 제목 하에 실려 있는데, 이외에 乙亥(1419) 문과급제자명단도 함께 실려 있다.

또한 귀도서관은 많은 문집류를 소장하고 있는데 이상에서 언급한 실기류 외의 문집류에도 본문이나 부록부분에 해당 인물관련 사마방목이 실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최진욱의 1988년 논고에 의하면 李哲明의 <止軒先生逸稿>와 權撥의 <冲齋先生文集> 등의 문집류에 실려 있는 사마방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止軒先生逸稿>(K 5568.2/4456) 및 <止軒先生文集>(K 5568.2/2143), <冲齋先生文集>(K 5568.2/414와 TK 1422/414)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이상으로 귀도서관에는 단권의 45종과 실기류에 실려있는 2종을 포함하여 총 47종의 사마방목을 소장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해외에 유출되어 있는 사마방목 중 가장 많은 종

수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외에도 복본과 복사영인된 것(부록 1) 및 마이크로 폼으로 된 사마방목(부록 2) 또한 소장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내용은 순수 귀도서관 소장 사마방목이라 보기 어렵고, 또한 일부 특징적인 사항의 포함으로 다음에서 기술하고 한다.

3.3 분석

여기에서는 이장에서 실시한 하버드연칭도서관 소장 사마방목을 대상으로 기존 논고의 문제 정정, 소장 사마방목 간본의 분석, 특징적인 사마방목, 문제의 사마방목, 복본의 사마방목 및 복사영인된 사마방목과 마이크로 폼 사마방목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장에서 하버드연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45종의 사마방목과 실기류에 실려 있는 2종의 사마방목에 대하여 각 소장 및 서지사항을 살펴보았다. 이는 계훈모의 1968년의 7종과 1980년의 2종과는 사뭇 다른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본고에서 바로잡는다.

우선 계훈모가 1968년에 언급한 귀도서관의 소장본인 1654년, 1721년, 1850년, 1858년, 1876년, 1891년 및 1894년의 사마방목을 살펴보면 30여년이 지난 2002년 지금 현재 귀도서관에 모두 소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재조사과정을 거쳐 1980년에 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언급한 1891년과 1984년의 사마방목도 소장되어 있다. 무슨 연유로 1968년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던 본 2종이 소장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상의 45종의 사마방목은 필사본과 활자본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상의 1564년본을 제외하면 필사본 5종, 목판본 9종, 활자본 29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종은 등사본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된 식년시의 사마방목 26종, 부정기적으로 실시된 증광시의 사마방목 19종을 소장하고 있다.

또한 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사마방목을 간행할 때 사용한 활자들중 특징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戊申字와 丁酉字를 사용하여 간행한 것들이 보인다. 이들 특정 활자를 사용하여 간행한 사마방목으로 <癸亥增廣司馬榜目>, <崇禎紀元後四戊申增廣司馬榜目>의 경우 戊申字를 사용하여 간행하였다. <崇禎三己酉式年司馬榜目>, <崇禎三辛酉春聖上即位

慶科別試增廣司馬榜目>, <崇禎三癸亥春大殿中宮殿疹候平復合三慶科別試增廣司馬榜目>, <崇禎百七十七年甲子式司馬榜目>, <崇禎三乙丑冬大殿痘候平復慶科別試增廣司馬榜目>, <崇禎紀元後百八十六年癸酉王人妃殿寶齡六旬上候平復王世子冊禮王人妃殿寶齡周甲合四慶慶科增廣司馬榜目>, <崇禎紀元後四辛卯式司馬榜目>, <崇禎紀元後四癸卯式司馬榜目>, <崇禎紀元後四丙午式司馬榜目>, <崇禎紀元後四戊午式司馬榜目>, <崇禎紀元後四丁卯式年司馬榜目>, <崇禎紀元後五丙子式司馬榜目>, <崇禎紀元後五丁午式司馬榜目>의 경우 丁酉字을 사용하였다.

이상을 살펴보면 2종의 사마방목이 무신자를 사용하였고, 13종의 사마방목이 정유자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기에 실린 2종의 사마방목을 제외한 총 45종의 원본 사마방목 중 30종이 활자본이며 그 중 15종의 사마방목이 특정활자를 사용하여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부 사마방목의 경우 정확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귀도서관 사마방목 중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을 밝힌다.

이외에 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사마방목 중 특징적인 것에 대하여 생원진사시 실시년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嘉靖元年[我中宗大王十七年]壬午式年司馬榜目>은 1522년(중종 17)에 정기적으로 실시된 式年試에 합격한 생원과 진사의 명부이다. 이 방목의 경우 권두 이배지에 ‘七世祖小科榜’이라는 필사 기록과 관련 명부 그리고 권두와 권미 이배지에 ‘十代祖東臯先生進士榜’이라는 기록과 관련 내용이 있다. 조사결과 이 방목에는 조선 중기의 문신 李浚慶(1499~1572)²⁰⁾이 생원시에 3등으로 합격한 것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후손들이 선조의 합격을 기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司馬榜目: 附文科榜目武科榜目>의 경우 <嘉靖二十八年己酉九月初九日司馬榜目>, <萬曆十一年癸未四月初四日文科榜目> 및 <萬曆十一年癸未四月初四日武科榜目>을 함께 필사해 놓은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 1549년(명종 4)에 실시된 생원 및 진사시와 1583년(선조 16)에 실시된 문과 및 무과 합격자의 명부이다. 권미에 尙州李氏의 ‘八高祖系次’, ‘星錫’, ‘永攏’ 및 ‘敬孝’에 대한 글이 적혀 있다.

<嘉靖四十三年甲子七月二十日司馬榜目>은 조선시대 1564년(명종 19)에 실시된 생원 및 진사시의 합격자 명부이다. 귀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본 방목은 하나는 필사본(圖 1)이고 또 하나는 활자본(圖 2)이다. 활자본에 실려 있는 “右 栗谷李文成公司馬榜目累經兵燹罕傳

20) 자는 原吉, 호는 東臯, 南堂, 紅蓮居士, 蓮坊老人, 본관은 경주이다.

於世遇得寫本恐其泯沒遂以校局鑄字印之與榜中諸公之後孫共焉我從曾祖峒隱先生諱義健亦同榜也。崇禎紀元後癸丑暮春完山李選謹識”의 기록에 의하면 우연히 전하는 필사본을 얻어 1673년에 활자본으로 인서한 것이며, 또한 이는 조선중기의 학자 이율곡이 생원시에 일등으로 합격한 내용이 실려 있는 방목이기도 하다. 이 방목을 보면 같은 시기에 조선중기의 문신 柳成龍 등 또한 생원시에 일등으로 합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두 사마방목은 이상과 같은 기록 외에 대부분 동일하며 크기가 조금 다른 것 외에 활자본의 경우 어미가 상사각 흑어미이고, 필사본의 경우 상하삼엽흑어미인 것이 다르다. 또한 활자본의 경우 판심서명으로 ‘甲子榜目’이라 표기하고 있다. 이들 두 방목의 뒷부분에는 조선시대에 임시로 실행된 문과별시의 합격자 명부인 <隆慶六年壬申(1572 선조5)十二月初二日文科別試榜目> 또한 권미에 실려 있다. 이들 두 방목에 대한 마이크로 폼 사마방목(부록 2) 또한 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蓮桂榜目: 萬曆丙辰天啓丁卯崇禎壬午>는 <萬曆四十四年丙辰三月初七日增廣司馬榜目>, <天啓七年丁卯式年文科榜目> 및 <崇禎十五年壬午式年文科榜目>을 함께 필사해 놓은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 1616년(광해군 8)에 실시된 임시과거시험의 합격자 명단이자 1627년(인조 5)과 1642년(인조 20)에 정기적으로 실시된 式年試 문과 합격자의 명부도 함께 실고 있다. 또한 권미에 ‘科製’에 대한 글을 실고 있다. 함께 필사한 특별한 설명이나 기록은 찾아 볼 수 없으나, 선조들의 과거 등제를 함께 모아 엮은 것으로 사료된다.

<戊子式年司馬榜目>의 경우 1648년(인조 26)에 정기적으로 실시된 式年試의 방목이다. 대부분의 다른 사마방목이 생원과 진사의 두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기록을 ‘兩試’라 표기하고 있는 반면, 본 방목은 ‘雙蓮’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처럼 ‘兩試’ 대신에 ‘雙蓮’이라 기록하고 있는 방목으로 이외에 조선시대 1691년(숙종17)에 실시된 부정기시험인 增廣試의 합격자 명부인 <辛未(1691 숙종17)增廣司馬榜目>도 있다. 무자식년의 방목의 경우 鹿岩公 10대손 羅鍾字가 쓴 ‘謹題 仁廟戊子(1648)式年試及孝廟庚寅(1650)增廣別試蓮榜後’라는 기록이 보이며, 이는 또한 등사본으로서 을유년(1945)에 등사된 것으로 사료된다.

<甲午式年司馬榜目>의 경우 1654년(효종 5)에 정기적으로 실시된 식년시의 사마방목으로 귀도서관 소장자료는 1680년(숙종 6)에 개장된 것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T:戊增廣司馬榜目>의 경우 1682년(숙종 8)에 부정기적으로 실시된 增廣試에 합격한 생원과 진사의 명부이다. 귀도서관 소장자료는 이후에 필사된 것으로 사료되며, 붉은 색

으로 광곽과 계선을 그려 넣었으며, 어미나 판심은 그려 넣지 않았다. 이외에 마지막장에 '榜目板本藏 在 鷓山族叔龍休氏家'라는 사마방목의 장서자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崇禎紀元後四辛卯式司馬榜目>의 경우 1831년(순조 31)에 정기적으로 실시된 式年試에 합격한 생원과 진사의 명부이다. 귀도서관 소장자료는 권수에 도장으로 '鄭直閣宅所有'라는 장서인이 찍혀 있는 것이 보인다.

<崇禎紀元後五乙酉式年司馬榜目>과 <崇禎紀元後五乙酉慶科增廣司馬榜目>의 두 방목은 같은 해인 乙酉年(1885 고종22)에 실시되고 이후 같은 해인 辛卯年(1891 고종28)에 간행된 방목의 예이다. 다만 전자는 정기적으로 실시된 式年試에 합격한 생원과 진사의 명부이며, 후자는 같은 해에 왕세자가 疹候에서 쾌유한 것 등을 축하하기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실시된 增廣試에 합격한 생원과 진사의 명부이다.

<上之御祚二十九年辛卯慶科增廣司馬榜目>은 1891년(고종28)에 부정기적으로 실시된 慶科에 합격한 생원과 진사의 명부로서 권말부분에 경사스런 일들을 나열하고 있으며, 특히 부록에 과거에 급제하고 예순이 되는 '回榜'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이상의 특징적인 사마방목 외에 일부 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사마방목 중에 문제가 발견되는 것들도 있다. 특히 소장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사마방목도 있다. 'TK 2291.7/1746(1673)'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마방목이 있는데 이는 카드목록과 HOLLIS 상의 기록은 보이나 실제자료의 소장여부를 알 수 없다. 카드목록상의 기록을 보면 <司馬榜目 [嘉靖四十二年甲子]> 및 '校書局, 崇禎紀元後癸丑(1673) 識 [校勘 1564] 1(5, 33). 32 cm'라 되어 있다. 이는 이상의 1564년의 사마방목 <嘉靖四十三年甲子七月二十日司馬榜目司馬榜目>의 사마방목을 분류 조직하면서 본 사마방목의 활자본에 기록되어 있는 '李選의 識'가 쓰여진 1673년이라는 기록을 보고 새로운 하나의 사마방목에 대한 기록으로 처리해서 생긴 오류가 아닌가 한다. 또한 1673년에 간행된 <壬子式年司馬榜目>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기본적으로 잘못 만들어진 기록이 아닌가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유실된 경우라 사료되며, 이는 장래에 귀도서관에서 다시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외에 사마방목 자체 기록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보인다. <崇禎紀元後四庚午式司馬榜目>의 경우로 이 방목은 승정기원후 4 경오년 즉 1810년에 실시 간행된 것으로 권두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승정기원후 5 경오년 즉 1870년에 실시된 사마방목으로

자체적으로 잘못된 기록이다. 이는 ‘숭정’이라는 중국의 년호를 사용하고 있는 사마방목에 서 가끔 보이는 문제로서, 그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외에 귀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5종의 복본 사마방목과 해당 복본의 서지사항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기없군서: 권두서명(실시서기년 및 왕대년). 간행처. 간행간지년(서기년 및 왕대년).

형태사항. 비교

崇禎 三乙丑(1805 순조5)冬大殿痘候平復慶科別試增廣司馬榜目 芸閣 1(1,19,18,5) 활자본(丁酉字本) 34.8×22.2 10항18자 상이엽흑어미 중봉에 서명표시 판심에 생원진사표시

崇禎紀元後四戊申(1848 헌종14)增廣司馬榜目 芸閣 己酉(1849 헌종15) 1(2,19,9,4) 36.3×22.5 활자본(戊申字) 10항18자 상이엽흑어미 중봉에 생원진사표시 판심에 서명및장수표시

崇禎紀元後四戊午(1858 철종9)式司馬榜目 己未(1859 철종10) 1(1,18,22) 36.2×23 활자본(丁酉字本) 10항18자 상이엽흑어미 중봉에 생원진사표시 판심에 서명 및 장수표시

崇禎紀元後五丙子(1876 고종13)式司馬榜目 1(3,8,19,5) 34.6×22 활자본(丁酉字本) 10항18자 4엽상흑어미 중봉생표시 판심에 서명 및 장수표시

上之卽祚二十九年辛卯(1891 고종28)慶科增廣司馬榜目 內閣 壬寅(1902 광무6) 2권2책 35.4×22.5 활자본 11항20자 상이엽흑어미 중봉에 생원진사표시 판심에 서명표시

이처럼 귀도서관 소장의 단권 45종 사마방목 중 5종의 사마방목에 대한 복본을 소장하고 있다. 대부분 동일한 서지사항을 보이고 있다. 다만 그중 1858년과 1876년에 정기적으로 실시된 式年試에 합격한 생원과 진사의 명부인 <崇禎紀元後四戊午式司馬榜目>와 <崇禎紀元後五丙子式司馬榜目>의 경우는 사용하고 있는 종이의 질과 무게 및 크기가 다를 뿐이다.

한편 하버드엔칭도서관의 기존의 카드목록이나 OPAC인 HOLLIS상에서 검색되는 사마방목으로 복사 영인된 사마방목(부록 1)과 마이크로폼화 된 사마방목(부록 2)도 있다. 하

버드엔칭도서관은 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사마방목에 대하여 한국의 각 도서관 및 문고에서 복사 영인하여 장서를 구축하고 있다. 복사영인된 형태의 사마방목들(부록 1'에 대해서는 상세한 서지사항의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귀도서관의 기존 카드목록상의 기록을 통하여 소장사항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1469년에서부터 1792년에 이르기까지 45종의 복사영인본이 조사되었다. 이들 복사영인본 중에는 다른 해에 발행되었으나 한 권에 함께 제본된 것(1483년본, 1540년본, 1646년본, 1652년본)도 있고, 두 권씩 소장되어 있는 것(1540년본, 1646년본, 1652년본, 1699년본)도 있다. 그 중 두 권씩 소장되어 있는 것 중 1540년과 1646년본은 각각 모두 식년시의 방목이며, 1652년본은 또한 두 권 모두 증광시의 방목이다. 이들은 같은 사마방목이 두 권씩 복사영인된 것으로 생각되며, 반면 1699년본은 하나는 식년시의 방목이고 다른 하나는 증광시의 방목이다. 따라서 귀도서관의 복사영인된 사마방목 중 같은 해로서 두 권씩 소장되어 있는 것은 복본의 관계로서 이들 3종(1540년본, 1546년본, 1562년본)을 빼면 총 42종이 소장되어 있다 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고려대학교 晩松金完變文庫, 연세대학교, 국립중앙도서관, 誠庵文庫과 같은 곳에서 필사본, 목판본, 활자본 또는 영인본의 사마방목들을 복사·영인하여 왔다. 각각 출처별로 종수를 보면 고려대학교 晩松金完變文庫에서 12종, 국립중앙도서관에서 7종, 연세대학교에서 4종, 誠庵文庫에서 13종을 복사영인하였다. 다만 1540년본, 1646년본 및 1655년본의 사마방목의 경우 모두 성암문고본으로서 이들 3종은 이상에서 언급하였듯이 같은 해 같은 종류의 사마방목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외 6종의 경우 출처가 밝혀져 있지 않아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다. 다만 본 복사영인본들의 경우 카드목록을 참조하여 조사한 것으로 귀도서관의 여건상 실제 소장사항과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들 복사영인된 사마방목 중 이미 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기존 소장본 47종 중 1646년의 <丙戌三月 日 乙酉式年司馬榜目> 1종을 제외하면 총 88종의 사마방목이 귀도서관에 소장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하버드연칭도서관은 소장되어있는 사마방목을 마이크로폼화 하던지, 또는 다른 곳에서 구입하여 왔다. 이 형태의 사마방목은 가장 변수가 많은 경우로서 상세한 서지사항의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귀도서관의 OPAC인 HOLLIS상의 기록을 통하여 소장사항을 조사하였다. 귀도서관은 1564년에서부터 1894년까지의 18종의 마이크로 폼의 사마방목(부록 2)을 소장하고 있다. 그 중 1564년본의 경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하나는 필사본이며, 하

나는 활자본으로 1종으로 처리하였다. 다만 이상에서 언급한 많은 사마방목 중 일부는 마이크로폼으로 된 사마방목을 전혀 소장하고 있지 않기도 하며, 하나의 사마방목에 2-3개(1564a년본, 1843년본, 1846년본, 1852년본, 1867년본, 1894년본)의 마이크로 폼으로 된 사마방목이 소장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마이크로 폼 자료는 언급하였듯이 한국에서 이미 제작된 것을 구입해 오기도 하고, 귀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마이크로 폼으로 제작된 사마방목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제작 및 입수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각각의 해당 번호가 일정한 순서에 의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체계적이지 않은 다른 번호가 주어지는 등 일관적이지는 않은 상태이다. 즉 하버드엔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 중 가장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폼 자료라 할 수 있다.

우선 'FK'는 '(Micro) Form of Korean', 'MF'는 'MicroForm', 'FK-M'은 '(Micro) Form of Korean-Master', 'P'는 'Positive', 그리고 'N'은 'Negative'를 의미한다. 그중 'FK-M'은 기본적으로 하버드엔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의미하며, 대부분 'negative'로 되어 있다. 'FK'는 한국과 같은 곳에서 구입 또는 기증 등의 방법으로 입수된 것으로 'positive'로 되어 있다. 단 'FK'로서 'negative'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FK103(N)'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마이크로 폼 자료들은 2003년부터 새로운 번호체계를 갖게 될 것이고, 특히 FK-M의 경우 같은 자료에 대한 마이크로 폼이 각각의 다른 번호 체계로 하버드엔칭도서관과 하버드대학 중앙도서관인 Widener Library에 소장 될 것이다.

4 결언 및 제언

고려 958년(광종 9)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과거는 유교 및 문치주의 위주의 조선시대에 이르러 더욱더 확장 발전되다가 고종 31년 갑오경장(1894)을 계기로 폐기되기까지 약 천년 동안 계속되었다. 사대부의 관료주의를 위한 발판이 된 과거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따라서 여러 폐단이 史書들에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

나 기본적으로 과거는 조선시대 관리사회의 관리인을 등용하는 중요한 관문의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에 과거가 실시된 이래 가장 전성기를 누렸으며, 개국이래 반세기 동안 실시된 조선시대의 모든 과거의 기본단계인 소과 생원진사시는 총 230회나 된다. 생원진사시 과거의 기록물인 사마방목 중 186회분의 것이 국내외에 전하고 있다. 이상의 조사를 종합하여 보면 미국 하버드 대학 하버드옌칭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사마방목은 총 47종이며, 이외 42종의 복사영인본과 18부의 마이크로폼 자료도 소장하고 있다. 그중 마이크로 폼으로 소장하고 있는 사마방목을 제외하고, 단권의 45종 사마방목과 실기류에 포함된 2종의 사마방목 및 귀도서관 기존 소장본과 중복되는 1종의 사마방목을 제외한 복사영인된 41종을 총합하면 총 88종의 사마방목이 소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 연구 중 조사된 7종이나 5종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수치이며, 이에 기존 연구 상에서 발견된 문제를 바로잡고자 한다.

한편 귀도서관은 미국내 동양도서관 중 대규모의 양질의 장서와 한·중·일·베트남·서구(Chinese, Japanese, Korean, Vietnamese and Western Section)의 세계적인 범위를 자랑하는 전문 동양도서관으로서 그중 한국부에 소장되어 있는 많은 선조들의 기록물들은 매우 귀중하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제대로 정리작업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인지 이상의 조사를 실시하면서 실제자료와 카드목록 및 OPAC인 HOLLIS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 발견되었다. 또한 기존장서로서 유실된 자료들이 간혹 발견되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는 귀도서관의 고전자료들이 지난 50여 년 동안 일부를 제외하고 현대서와 함께 혼합되어 개방되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전부터 많은 자료들이 중국사서들에 의하여 목록작업이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사정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귀도서관의 경우 각 나라별 공간 할당의 문제, 전문인력의 부족, 동양도서관 내에서의 한국부의 자리메김 등의 문제로 귀중한 한국고서들이 아직은 제자리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또한 사마방목을 포함한 많은 고서들이 양장본으로 재장정되어 있다. 이는 관리 및 보존 등의 문제로 차선의 대안으로 처해진 조처라 할 수 있으나 한편 고서의 형태 하나 하나까지 귀중한 옛 선조들의 흔적이며 문화유산이라는 측면을 생각할 때 조금은 안타까운 점이라 생각된다. 이는 중국부, 일본부, 한국부, 베트남부 및 서양부로 구성되어 있는 귀도서관의 복잡 다양한 업무스타일이 또 다른 세부적인 원

인이 되기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행인 것은 2000년부터 “The bibliography project of Korean rare books”라는 특별 프로젝트를 계획 실시하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정리 및 목록 해제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귀중한 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선조들의 기록물들이 이들 전문가들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처리 및 관리 보존되고, 더 나아가 국외 동양도서관으로 동양학 및 한국학 연구자 및 학자들에게 보다 많은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본고는 해외에 소장되어 있는 사마방목에 대한 지극히 초보적인 연구이다. 조선시대의 과거가 생원진사시인 소과를 기초로 대과인 문무과로 완성되었으므로 이후 대과 과거의 기록물인 문무과방목에 대한 고찰, 잡과 과거의 방목들에 대한 연구 외에 귀도서관 및 국외 소장 현황에 대한 고찰 또한 요구된다. 이에 본고가 해외소장 사마방목, 해외유출 한국전적, 한국과거사 등에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參考文獻>

1. 고전자료

- 『經國大典』
- 『高麗史』
- 『大典通編』
- 『大典會通』
- 『續大典』
- 『朝鮮王朝實錄』
- 『增補文獻備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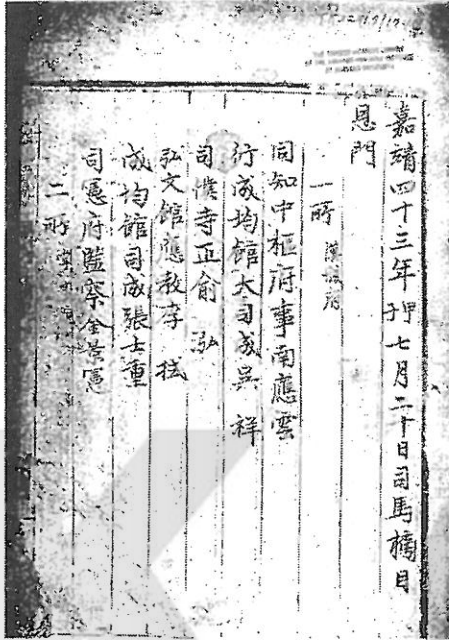
2. 현대자료

- 桂勳模 編. 「司馬榜日總錄: 附司馬試設科年次」. 『歷史學報』 38집, 1968.
- 桂勳模 編. 「司馬榜日總錄: 附司馬試設科年次」. 『歷史學報』 88집, 1980, 12.
- 朴天主. 「世宗朝의 詩學興行策에 대하여: 生進兩頭場의 成立背景에 관한 一考察」,

- 『東洋學』 13輯, 1983, 10.
- 이성무. 『과거제도사』. 서울: 민음사, 1997.
- 李成茂. 『韓國의 科擧制度』. 서울: 集文堂, 1994.
- 李炳注. 『韓國科擧史』. [서울]: 明義會, 1987.
- 李鍾春. 「科擧制度 研究」, 『淸州教育大學 論文集』 8輯, 1972.
- 李洪烈. 「司馬試出身과 榜會의 意義: 壬午司馬榜會의 圖에 나타난 官員社會 公同意識」, 『淸州教育大學 論文集』 8輯, 197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CD-ROM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울: 서울시스템주식회사, 2002.
- 卞在鎬. 「李朝司馬試考(上)」, 『成大論文集』 14輯, 1969.
- 卞在鎬. 「李朝司馬試考(下)」, 『成大論文集』 16輯, 1972.
- 崔珍玉. 「15世紀 司馬榜目의 分析」, 『淸溪史學』 5, 1988.
- 崔珍玉. 『朝鮮時代 生員進士研究』. 서울: 집문당, 1998.
- 한갑수. 『국어대사전』. 서울: 興文圖書, 1975.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찬. CD-ROM 사마방목: 조선시대생원진사시합격자 신상정보. 서울: 서울시스템주식회사,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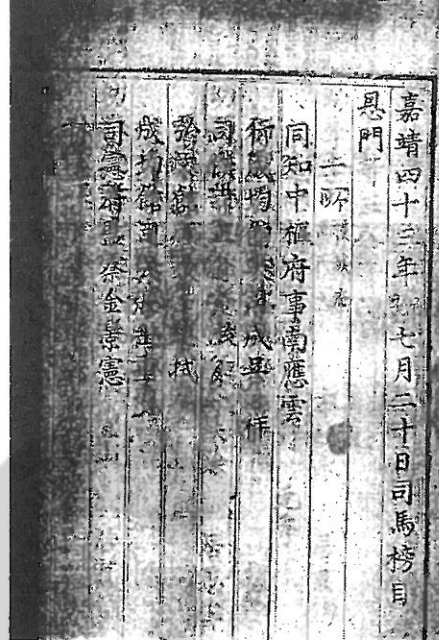
<圖 1> 필사본의

<嘉靖四十三年甲子七月二十日司馬榜目>



<圖 2> 활자본의

<嘉靖四十三年甲子七月二十日司馬榜目>



부록 1. 하버드 엔칭 도서관 소장 복사영인 사마방목

- 기입순서: 권두서명(실시서기년 및 왕대년), 복사 및 영인출처, 간본, 비고
- 成化己丑(1469 예종1)六年九月日生員進士試榜: 고려대학교 晚松金完燮文庫의 활자본(甲寅字本)
- 成化十六年庚子(1480 성종11)三月初三日司馬榜目 1483 醴泉: 堤洞齋舍, 昭和 11[1936]
- 成化十九年癸卯(1483 성종14)式二月日生員進士榜目: 誠庵文庫의 영인필사본
- 弘治九年丙辰(1496 연산2)閏三月初三日生員榜
- 正德二年丁卯(1507 중종2)九月初七日司馬榜目: 誠庵文庫의 영인필사본
- 正德五年庚午(1510 중종5)二月二十五日司馬榜目: 연세대학교의 필사본
- 嘉靖四年乙酉(1525 중종20)二月二十一日生員進士試榜目: 고려대학교의 활자본(乙亥字本)
- 嘉靖七年戊子(1528 중종23)二月二十四日生員進士榜目 隆熙3年己酉(1909 순종3)重刊本: 연세대학교의 목판본
- 嘉靖十三年甲午(1534 중종29)閏二月初二日生員進士榜: 誠庵文庫의 활자본(乙亥字本)
- 庚子(1540 중종35)司馬榜目: 誠庵文庫의 영인필사본
- 嘉靖十九年庚子(1540 중종35)二月二十三日式生員進士榜目: 誠庵文庫의 영인필사본
- 嘉靖二十五年丙午(1546 인종1)九月日生員進士試: 고려대학교 晚松金完燮文庫의 활자본(乙亥字本)
- 嘉靖三十一年壬子(1552 명종7)司馬榜目: 고려대학교 晚松金完燮文庫의 활자본(乙亥字本)
- 嘉靖三十四年乙卯(1555 명종10)三月初七日司馬榜目: 고려대학교 晚松金完燮文庫의 활자본(乙亥字本)
- 嘉靖三十七年戊午(1558 명종13)秋生員進士榜目: 誠庵文庫의 활자본(乙亥字本)
- 辛酉(1561 명종16)司馬榜目: 고려대학교 晚松金完燮文庫의 활자본(乙亥字本)
- 戊辰(1568 선조1)年增廣司馬榜目: 연세대학교의 영인필사본
- 隆慶四年庚午(1570 선조3)二月十八日司馬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의 영인필사본
- 萬曆元年癸酉(1573 선조6)二月二十四日司馬榜目: 誠庵文庫의 불완전한 영인본(乙亥字本)
- 萬曆十六年戊子(1588 선조21)二月二十四日司馬榜目: 誠庵文庫의 영인본(再鑄甲寅字本)

- 萬曆三十八年庚戌(1610 광해2)閏三月初六日式年司馬榜目
 萬曆四十年壬子(1612 광해4)三月十三日司馬榜目: 고려대학교의 목판본
 癸丑(1613 광해5)增廣司馬榜目[萬曆四十一年五月初五日]: 고려대학교 晚松金完燮文庫의 목판본
 萬曆四十四(1616 광해8)年内辰三月初七日增廣司馬榜目: 求禮縣 萬曆48(1620 광해12)跋 고려대학교 晚松金完燮文庫의 목판본
 戊午(1618 광해10)式年司馬榜目 [萬曆四十六年]: 誠庵文庫의 불완전한 목판본
 甲子(1624 인조2)增廣司馬榜目: [天啓四年甲子八月十一日初場...] 목판본
 丙戌(1646 인조24)三月日乙酉式年司馬榜目 표지서명: 瘦齋司馬榜目: 誠庵文庫의 필사본
 仁祖大王二十三年乙酉(1646 인조24)式退行丙三月八日生員進士榜目: 誠庵文庫의 영인필사본
 丁辰(1652 효종3)增廣司馬榜目 표지서명: 月洲蘇斗山司馬榜: 誠庵文庫의 목판본
 孝宗大王三年壬辰(1652 효종3)增廣司馬榜目: 誠庵文庫의 영인필사본
 庚子(1660 현종1)增廣司馬榜目: 歲甲寅(1674현종15)四月始以活字印 尹深識 활자본(洛東契活字)
 丙午(1666 현종7)式年司馬榜目: 고려대학교 晚松金完燮文庫 목판본
 辛酉(1681 숙종7)式年司馬榜目: 誠庵文庫의 활자본(戊申字)
 己卯(1699 숙종25)式年司馬榜目: 고려대학교 晚松金完燮文庫 목판본
 仁祖三十五年己卯(1699 숙종25)端宗大王定順王后復位附廟增廣別試司馬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본 원본의 첫면과 끝면이 유실
 壬午(1702 숙종28)式年司馬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본
 辛卯(1711 숙종37)式年司馬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본
 癸卯(1723 경종3)式年司馬榜目: 己酉[1729]開刊 誠庵文庫의 활자본
 聖上元年乙巳(1725 영조1)增廣別試用即位慶司馬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본
 崇禎再甲寅(1744 영조20)式年司馬榜目: 芸閣 庚午(1750 영조26)活人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본
 崇禎三壬午(1762 영조38)式年司馬榜目: 목판(戊申字覆刻) 芸閣 (1764 영조40)
 乙酉(1765 영조41)式年司馬榜目: 誠庵文庫의 활자본(戊申字)
 癸巳(1773 영조49)合六慶大增廣司馬榜目: 고려대학교 晚松金完燮文庫의 활자본(三籀甲寅字)

丁酉(1777 정조1)式年司馬榜目: 국립중앙도서관의 목판본

崇禎壬子(1792 정조16)式年司馬榜目: 芸閣藏板 癸丑(1793 정조17) 연세대학교의 목판본

부록 2. 하버드옌칭도서관 소장 마이크로 폼 사마방목

기입순서: 권두서명(실시서기년 및 왕대년), 간행서기년, 마이크로 폼 번호

嘉靖四十三年甲子(1564 명종19)七月二十日司馬榜目 FK-M1950

嘉靖四十三年甲子(1564a 명종19)七月二十日司馬榜目 FK-M1387; FK-M1949

崇禎八年乙亥(1635 인조13)十月初四日增廣司馬榜目 FK-M216

丙戌三月 日乙酉(1646 인조24)式年司馬榜目 FK1365

戊子(1648 인조26)式年司馬榜目 FK176

甲午(1654 효종5)式年司馬榜目 FK-M217

壬戌(1682 숙종8)增廣司馬榜目 MF

辛未(1691 숙종17)增廣司馬榜目 FK-M1951

癸巳(1713 숙종39)增廣司馬榜目 FK199

崇禎百七十七年甲子(1804 순조4)式司馬榜目 MF

崇禎紀元後百八十六年癸酉(1813 순조13)王人妃殿寶齡六旬上候平復王世子冊禮王大妃殿

寶齡周甲合四慶慶科增廣司馬榜目 FK233

崇禎紀元後四癸卯(1843 헌종9)式司馬榜目 FK786; FK110

崇禎紀元後四丙午(1846 헌종12)式司馬榜目 FK111 MF; FK35 MF

崇禎紀元後四庚戌(1850 철종1)增廣司馬榜目 FK114 MF

崇禎紀元後四壬子(1852 철종3)式司馬榜目 FK783 MF; FK115 MF

崇禎紀元後四丁卯(1867 고종4)式年司馬榜目 FK784 MF; FK229 MF

崇禎紀元後五甲戌(1874 고종11)增廣別試司馬榜目 FK117 MF; FK34 MF

崇禎紀元後五乙酉(1885 고종22)慶科增廣司馬榜目 FK119 MF(Positive)

上之卽祚三十二年甲午(1894 고종23)式年司馬榜目 MF(P); FK1374(N)

www.kcs1.com

KCS1